

사설

경주 지키기 청사진

개발이나 보존이나 하는 논쟁은 우리나라가 경제제일주의를 내걸고 일어나기 시작한 오랜 논쟁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개발하면 있던 기존의 환경을 송두리째 없애 버리고 번듯한(?) 새로운 모습의 건물을 짓는다거나 새로운 모습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개발이란 계획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가치를 높여 산업을 일으킨다는 표현이 자칫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개발논리를 앞세우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개발에 대한 인식수준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제 그 오해를 수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산업은 좁은 의미에서의 공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사업이 그 나라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뒤늦었지만 우리들이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로마가 공장산업이 번창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남긴 방대한 유적과 역사를 전세계인의 것으로 가꾸었기 때문에 로마는 아직도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된 것이다.

이제 직접적이고 왜곡된 개발논리를 불식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답답하게 고도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동안 경주고속전철의 동과 라인과 경주역사 문제로 공방되었던 문화유적의 보존과 개발논쟁이 일단락됨으로써 자칫 새로운 개발논리가 고개를 들 것 같은 의구심에서 몇가지 정리를 해본다.

첫째 경주의 진정한 개발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통합적인 고도경주의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물론 경주의 산발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때그때 필요한 프로젝트이지 경주를 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스터플랜은 아닌 것으로 안다. 이런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직접적인 하나하나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치 기형적인 도시가 되어버릴 것이다. 뚜렷한 목표 즉 경주는 천년고도로서의 역사와 유적을 보존 개발하는 목표를 전제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밀실행정의 소산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경주의 문화유산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함께 공감하는 정서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넷째는 이 마스터플랜의 공감이 형성되고 실현단계에 들어가자면 법제도의 정비와 튼튼한 밑그림이 필요하다. 튼튼한 밑그림이 없이 시작한 실적이 얼마나 위험하고 낭비인가 하는 것은 경주고속전철의 건설을 지켜보며 깨달았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혼연의 힘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경주로 개발되어 다시 태어날 것이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해야 할까, 무엇을 근본으로, 또 무엇을 단초로 삼을까 하는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냥 이대로 갔다가는 왜곡된 개발논리에 밀려 경주는 한낱 뒤쳐진 공업도시로 전락해 버릴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감돈다. 때마침 지역 지식인 일각에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이들은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이다. 경주지역의 교수 236명이 경주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선언문을 채택하고 나선 행동은 꼭 시기가 적절하고 용기있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선언이라 격려를 보낸다. 이제 선언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모두의 힘과 정서를 합쳐 실천으로 옮겨 보자.

열린마당

한글 로마자 표기법

문화체육부·국립국어연구원의 한글·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을 놓고 영어·국어·불교학계가 이의를 제기해 8월경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 연말로 미뤄졌다. 지금까지는 문교부 표기법이 소리는 대로 표기한 전사법(轉寫法)인데 반해 '개정시안'은 한글 철자법을 따른 전자법(轉字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126호 15면 참조)

최근 동대 한영불교사전편찬위는 "현행 표기법대로 영역어규를 정할 것"이라는 최종 입장을 밝혀 불교용어의 영역에 있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한글·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찬반론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새 표기법이 확정되면 '도로표지판' '문화재 이름' 등 고유명사를 새로 표기해야 한다.

반달표·어깨점 삭제... 뜻구별 쉽게

김세중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메퀴-라이샤위 표기법을 일부 수정한 표기법으로 1984년에 고시되었는데, 외국인이 국어 발음과 비교적 가깝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기법이다. 그런데 '어'와 '으'를 나타내는 ɔ, ʉ는 인위적으로 만든 글자여서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으며 'ㄱ, ㄷ, ㅌ, ㅈ'도 외국어에 없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어에서도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ɔ, ʉ를 o, u로 적고 마는 것이 보통이고 'ㄱ, ㄷ, ㅌ, ㅈ'도 어깨점(˙)을 생략해서 k, t, p, ch로 적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적을 때 '어' '으'를 ɔ, ʉ로 적지 않음은 물론이고 o, u로 적는 사람도 드물고 '어'는 u, '으'는 eu 따위로 표기법과 전혀 달리 적는 이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문화된 표기법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국내외에서 누구나 따를 수 있는 표기



법을 만들어서 그 표기법에 따라 일관되고 통일된 표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반달표와 어깨점이 필요 없게 만들었다. 또한 외국인의 발음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뜻의 구별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만 보면 어떤 말을 적었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특수 기호와 발음 중심이 특징인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고수하는 것은 표기의 혼란만을 가져올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초 잘못 만들어진 로마자 표기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비록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자신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 보완 외국인 혼란 최소화

조의연 <동국대 교수, 영어영문학>



한글·로마자 표기법 개정시안에 쏟아지는 찬·반 여론을 지켜보면 '로마자 표기법은 단순한 규약'이라는 생각이 절실하다. 특히 표기법을 통일시키고 한글 맞춤법을 그대로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개정시안은 재정·행정적 노력에 비해 잃을 것이 더 많을 것 같다.

언어학에는 '다이크리틱'(diacritic)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것은 반각기호, 어깨점 등과 같이, 특정 음성을 그대로 옮겨내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 기호를 지칭하며 외국어를 연구할 때 편리하다. 언어란 바로 '소리체계'이며 이 체계가 동일한 언어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의 철자는 어두(語頭) 어미(語尾)에 따라 다른 음(소리)을 나타낸다. '강'은 [강] '위'는 [스] [크] 등으로 각기 달리 소리난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강'은 [그]로만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은 '스님'(sunim)을 '센님' '김'(Gim)을 '짐'으로 읽고 '속리산'(soglisān)은

'소그리산'로 발음할 것이다. '개정시안'이 언어를 너무 경직된 체계로 묶어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부자연스럽고 원문에 오해를 자아내기 십상이다.

개정 작업은 문자생활의 불편을 보완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

어깨점 대신 [h]를 쓴다든지, 반달표를 없애는 대신 '으'를 [u]로 하고 '우'를 [wu]로 하며 '오'는 [ow]나 [oh]로 표기해 보는 다각적인 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역이 빈번한 번역서에는 '음역 표기법'을 설명하는 도표를 말미에 첨부하는 등 음역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 노력을 경주해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표기법 비교

구분	문화부·국립국어원 개정안(22안)	동국대 편찬위
원효	Wenhyo(Woonhyo)	Wŏnhyo
아미타불	amitabwul	ami' abul
관세음보살	gwanseumbosal(gwanseumbosal)	kwanseumbosal
약사여래	yagsayerai(yagsayerai)	yaksayerae
보살	boasal	posal
대웅전	daiwungjeon(daiwungjeon)	taewungjeon
대중방	daijungbang	taejungbang
요사채	yosachai	yosach' ae
사리	sari	sarira
비구니	bigwuni	piguni
유점사	yuwjomsa(yuwjomsa)	Yujomsa
스님	sunim	sulim
석굴암	seoggwaram(seoggwaram)	sokguram
다보탑	dabotab	tabot' ap
극락전	guglagjeon(guglagjeon)	kungmakjeon
무량수전	mwuryangswujeon(mwuryangswujeon)	muryangswujeon
응진전	wungjinjeon(wungjinjeon)	ungjinjeon
명부전	myeongbwujeon(myeongbwujeon)	myongbujjeon
서울	seowul(sewul)	seoul

동국대 입장 기존 표기법 용어영역화 강행

동국대 한영불교사전편찬위(이하 '편찬위')는 외국 학계에서 널리 유통되는 메퀴-라이샤위 표기법을 한영불교사전 등 영역과 작업에 계속 사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문화체육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이 마련한 개정시안은 불교계와 표기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두 표기법은 특히 'ㄱ·ㄷ·ㅌ·ㅈ'의 자음과 'ㄱ·ㅌ·ㅈ'의 모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메퀴-라이샤위 표기법이 일반인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한글의 음가와 연음 현상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학계에서 선호하고 있어 새로운 표기법이 국내·외 학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편찬위의 경우 '한영불교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쏟은 지난 2년간 작업을 수정해야 하는 시간·재정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라도 앞으로 한국불교학회 등 여러 유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학계에서 어떤 표기를 공용하고 있는지 세밀히 파악해 새로운 표기법을 제정해줄길 바란다.

나라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발음을 음역해 그 단어의 의미와 철자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언어학적 모순일 것이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논쟁은 그 체계가 완전하나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체계가 더 만족스럽고 적절하냐에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영불교사전' 편찬과 '원효저술' 번역 사업은 불교계 뿐 아니라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불사이다. 두 사업을 통해 이룩할 한국불교의 진보(進歩)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교 용어의 영역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현대 불교 대중서적

현대만평

박구원

제도가 너무 짜요

고심사 영탑원

부모를 위한, 가족을 위한 영가의 안식처가 마련되었습니다

■ 영탑의 크기: 높이 2.6m, 넓이 1.1m×1.1m ■ 봉안납골: 가족유골 16구 봉안

영탑원이 헤더리는 일

- 장례 의식의 제반 절차와 화장 및 운구 의식 집전
- 영탑 봉안 및 49재 등 장례 후의 의식 봉행
- 상주와 조문객을 위한 정갈한 공양 제공
- 매일 조식기도 봉행
- 기제사와 백중·추석 등 주요 절기에 합동 추모기도 봉행
- 매장을 모셨으나 이장을 원하시는 경우 파묘, 화장, 운구, 영탑 봉안 등 제반 의식 집전

고심사 안내도

사단법인 한국불교대원회 **고심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영덕리 111-1 ☎ (0446) 78-5408
 서울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불교방송국 2층 다원산업
 ☎ (02) 701-6456~7 (02) 701-5374~5 FAX: (02) 3272-1389